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연계 분석을 통한 실용음악교육 적용 방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through Link Analysi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and Education Policy

강윤정* · 강래형**

Yoonjeong Kang · Raehyung Kang

초록 본 연구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정책의 연계 분석을 통해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문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용음악교육은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 제공, 음악교육 범주의 세분화,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다각화된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내 실용음악교육 활성화, 교외 자원을 활용한 전문화된 실용음악교육을 적용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의 장애 영역·정도와 교육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실용음악교육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실용음악교육, 특수교육, 음악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정책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apply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education policies under the 2015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2020 special education operation plan. As a result of literature analysis, practical music education has the acceptability of providing diverse and equal education, subdivision of music education category, supporting career exploration and design, and opening and operating programs that reflect needs. Based on this, it was proposed to apply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and teachers, revitalize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curriculum and after-school programs, and specialize in practical music education using suburban resources. As such, substantial practical music education measures should be continuously sought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area of disability, degree of disability, and educational conditions of students.

Key words: applied music education, special education, music educatio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 policy

* First author, E-mail: yvette0727@naver.com

Student Researcher(Doctor's course) Kyunghee University, 1732, Deogy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Co-author, E-mail: rh33333@naver.com

Student Researcher(Doctor's course), Kyunghee University, 1732, Deogy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I. 서론

장애 학생 대상 음악교육은 학생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학생이 지닌 음악적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시티(M. C. Cassity, 1994)에 따르면, 특수학교 음악교육은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 인지, 정서, 행동, 운동, 사회성 그리고 심리적 필요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여 과제수행 능력과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음악활동을 외부적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시킴으로써 음악적 흥미와 관심을 높여 주어야 한다(Min, 2017, p. 41).

현대의 실용음악은 대중음악을 비롯하여 케이팝(K-Pop), 힙합(Hip Hop), 팝(Pop), 재즈(Jazz), 보사노바(Bossa Nova), 록(Rock), 블루스(Blues)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며 영화음악, 광고음악,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형태로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중 대중음악은 당대의 문화와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며 유행을 선도하고 쉽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현재 일반 중 · 고등학교 정규 음악 교과 수업 내 대중음악의 비중이 확대되고 방과후학교에서도 실용음악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급)의 경우 학생들이 실용음악교육에 높은 흥미를 가지고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 체계 미흡 및 사교육의 한계로 인해 교내 실용음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의도에 적합한 대중음악을 선정하고 학생의 장애 영역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내 교육에 활용한다면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가창, 연주, 창작 등 흥미 및 적성을 발견하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진로 탐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공교육에서 나아가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자립심 및 사회성, 협동심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용음악교육은 전문화 ·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실용음악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구성한다면 교내 및 교외 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 구체적인 교육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각각 분석하고 연계하여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한 문헌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¹⁾과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으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구성·편성·운영과 음악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각각 살펴본 후 실용음악교육 수용 가능성과 연관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그 후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의 수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의 필요성

1. 특수학교(급) 내 실용음악교육 현황

‘2020년 특수교육통계(Ministry of Education, 2020b, pp. 10-11)’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특수학교는 177곳, 특수학급은 11,105곳, 학생 수는 11,661명으로 나타났고 2020년 전국 특수학교는 182곳, 특수학급은 11,661곳, 학생 수는 95,420명으로 전년에 비해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장애 영역, 장애 정도와 적성, 재능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Table 1> Major status of special education in 2019 and 2020

	2019	2020
Number of special schools	177	182
Number of special classes	11,105	11,661
Number of students	92,958	95,420

2015 개정 특수교육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제시한 가창곡의 악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교과서 제재곡 중 대중음악의 비중은 2011년보다 5.7% 증가하였으며(Kim, 2018, pp. 17-18), 고등학교의 경우 공연음악, 음악과 대중매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Min, 2017, p. 52).

강래형, 강운정(Kang & Kang, 2020)은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악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선호도·흥미

1)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별책 3]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일부개정 포함)

도·만족도·적합도에서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체험 프로그램 이전 실용음악교육 경험 여부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험한 적이 없으며, 실용음악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특수학교(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실용음악교육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Kang & Kang, 2021, p. 293).

<Table 2> Expected effects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on students

Division	N	%
Strengthen muscle strength and increase physical activity using preferred music	20	39.2
Improv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through vocal, instrument performance, and creation	31	60.8
Social improvement through practical music band activities	18	35.3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peers and increasing emotional intimacy	28	54.9
Total	97	190.2

중복 답변이 가능한 설문문의 상위 답변으로는 보컬·악기 연주·창작을 통한 자존감 및 성취감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또래 학생들과의 소통 강화 및 정서적 친밀도 증가, 선호하는 음악을 활용한 근력 강화·신체 활동 증가, 실용음악 밴드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순으로 응답되었다.

예술 교육은 예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새로이 발견하고, 예술의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공감하고 예술에 대한 인식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직접 발견하여 긍정적 자아 인식이 나타나게 된다(Lim, 2020, p. 178). 현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1년 3월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분야 특수학교가 개교하였고, 전국 2곳의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도 설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A디지털교육원은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장애 학생의 장애에 맞춘 학과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용음악과’를 개설하여 발달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춰 장애 학생들끼리 진행되는 이론수업과 비장애 학생과도 함께 배우는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있다(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9). 이처럼 실용음악교육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 특수학교, 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2. 장애 학생 대상 실용음악교육의 의의

대중음악은 당대의 문화를 비롯하여 대중의 경험 및 정서를 반영하고 청중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대량으로 소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케이팝을 비롯한 아이돌 문화가 확산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접근이 용이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중음악은 특히 경험이 제한적인 장애 학생에게 수업에 대한 몰입과 동시대, 동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치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Mun & Lim, 2016, pp. 154-155).

실용음악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적합한 대중음악을 선별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가진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 방법이 고안된다면 장애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불안 및 우울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감각을 이완시키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가사를 재구성하거나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 합주를 하며 또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선호하는 대중음악을 사용한 음악 활동을 통해 언어적 표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은 음악 위에 몸동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신체적 기능에 제약이 있는 학생들은 음악에 맞춘 움직임을 통해 대근육과 소근육의 기능을 향상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에서 예술·체육 교과와 연계하여 편제와 편성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용음악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용음악교육이 교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실용음악교육이 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으며 흥미 및 적성을 발견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신체적·심리적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III. 특수교육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연계

1. 2015 개정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석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인지적 제한이나 신체적 제한과 같은 학생들의 특징으로 인

해 그 변천 과정이나 교육과정 내용이 일반학교 교육과정과는 다르며, 그 중 음악과는 학생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 안정감 및 심미감을 기르는 데 적합한 교과로서 필수적으로 구성되었다(Won, 2018, pp. 58-59). 특수교육 음악교과 목표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함양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의 발달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 298). 학생들은 음악 감상 및 노래를 부르는 활동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합창, 합주 등 함께하는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 활동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하는 한편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부의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8, p. 4)' 구성에 따르면 특수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항목에는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여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 4).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면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 11). 고등학교의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 음악 관련 교육과정을 분류하면 보통 교과에서는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교과²⁾ 중 전문 교과Ⅰ에서는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교육 음악교과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p. 21-22).

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제시되어 있는 전문 교과는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전문 교과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등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된 전문 교과Ⅱ, 직업과 이료에 관한 전문 교과Ⅲ으로 분류되어 있다.

<Table 3> Standards for allotment of special education middle school music class hours

Division	Middle school	
	Common curriculum and elective-centered curriculum	Baic curriculum
Hours	Required number of hours completed	Required number of hours completed
Art	272	306
Subject other than art	2,788	2,652
Subtotal	3,060	2,958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306	408
Total number of class hours	3,366	3,366

교과는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 단위로 학문적 분류 체계나 사회·문화적 활동이 요구에 따라 성립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외의 지적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다(Bae, 2019, pp. 39-40). 중학교의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총 수업 시간 수인 3,366시간 중 교과(군)는 3,06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306시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교과(군) 중 예술(음악/미술)은 27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본 교육과정은 총 수업 시간 수인 3,366시간 중 교과(군)는 2,958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408시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교과(군) 중 예술(음악/미술)은 306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할 수 있지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p. 18-39).

<Table 4> Standards for allotment of special education high school music class hours

Division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and special purpose high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Industrial demand customized high school		Basic curriculum	
Hours	Required number of hours completed	Autonomous organization time	Required number of hours completed		Autonomous organization time	Required number of hours completed
Art	10	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aptitude and career path	6		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aptitude and career path	18
Subject other than Art	84		146			160
Subtotal	94	86	Normal subject	66	28	178
			Specialized subject	86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24		24		26	
Total number of class hours	204		204		204	

고등학교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의 경우 편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 표의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나타낸다. 단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는 총 204 이수 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 94, 자율 편성 86과 창의적 체험활동 24, 예술 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율 편성 단위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예술의 필수 이수단위가 6으로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보다 적었으며 기본 교육과정은 예술의 필수 이수단위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p. 15-43).

본 연구는 특수학교(급)에서 실용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해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중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공통 사항,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 기본사항과 교수·학습,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 국가 수준의 지원,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p. 3-52).

<Table 5> Classification of curriculum for acceptance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Contents of the curriculum	Content
Empowering individual students	•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 Support according to learning and disability level and talent
Strengthening music curricul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 Utilization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develop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Career exploration and design using suburban resources	•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local community •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ield practice programs • Career guidance and linkage • Reinforcement of student participatory classes
Opening of after-school and vacation programs	• Accepting the needs of students and parents •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methods, and learning groups

위의 표에서 분류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 개별 학생 역량 강화, 음악 교과 편성·운영 강화, 교외 자원을 활용한 진로 탐색 및 설계,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개별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학생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애 영역 및 정도, 학습 수준 등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및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여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다.

둘째, 학교는 음악교과 편성·운영을 강화할 수 있다.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교외 자원을 활용한 진로 탐색 및 설계를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 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교과 운영 시 주 1회 이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고,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학교는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교내에서 다방면의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

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가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2. 특수교육 정책 분석

현재 시행 예정인 특수음악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 과에서 발간한 ‘2020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에서 특수음악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발췌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Education, 2020a, pp. 4-70).

<Table 6> Educational policy classification for acceptance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Policy	Content
Ensuring equal and fair opportunities	• Expand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class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lasses • Promoting the expansion of th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Enhanced support for integrated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special and general teachers • Reinforcement of the curriculum/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operation • Strengthening support for cultural arts and spor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Expand support for students with moderately multiple disabilities
Reinforcement of career and higher lifelong education support	•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free semester and academic year system • Establish a system to support community-centered experiential activities • Professionalization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 Strengthening support for classroom improvement
Spreading a culture of empath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 After-school specialization pr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Base Vacation Program

음악과 관련된 주요 교육정책으로는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이 있다.

첫째,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한다. 그 중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을 설치·운영하여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49교)을 운영 중이

며 예술·체육 분야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내실화를 구축한다.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특수·일반교사, 지역 중심 전문가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며 특수·일반교사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장애 학생 문화예술·체육과 중도중복 장애 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 학생 문화체험 활동, 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고 장애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자 하며, 시·도별 장애 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한다.

셋째,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자유학기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발전을 위해 우수 운영모형을 발굴 및 보급하고 미래 진로 설계 지원 부분을 강화한다. 특수교육원의 연구보고서(Park et al., 2019, p. 131)를 살펴보면 특수교육정책은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부처 간 중·단기 협업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계획-운영-평가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장애학생 특수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진로·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들 간의 계획을 반영하여 협업에 대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단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향후 계획에 순환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Park et al., 2019, p. 13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점특수교육센터 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한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가 있다. 학생의 진로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이 개발한 장애 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를 활용하고 예술·체육 분야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적용하고, 교사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지원한다. 맞춤형 진로체험은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한다.

넷째,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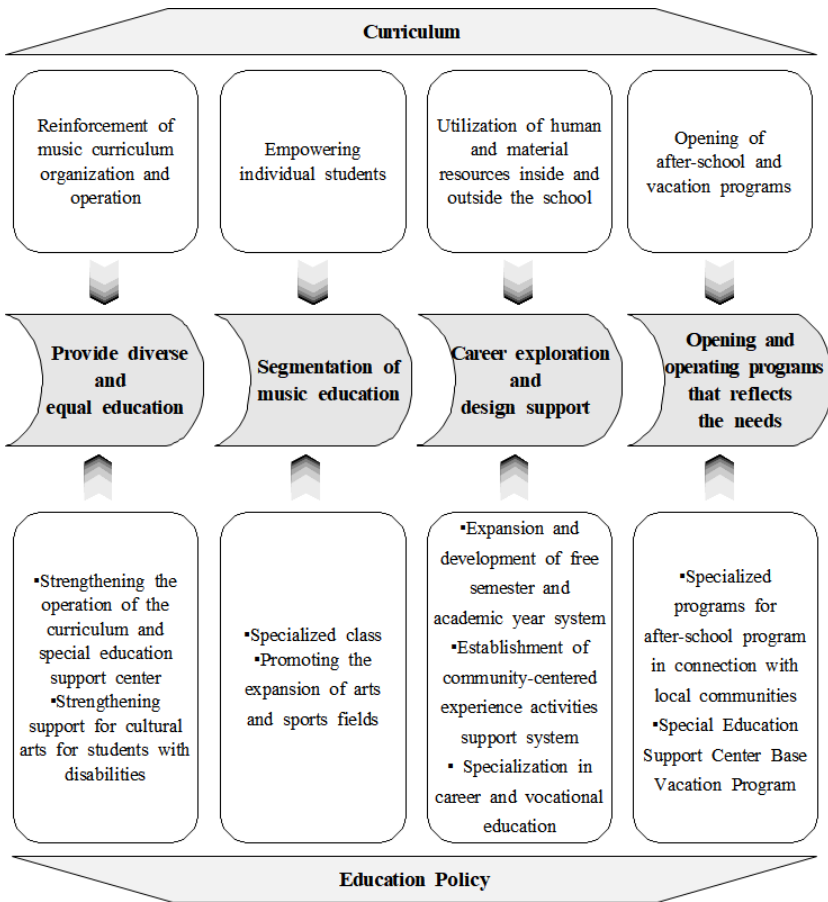
계를 강화하여 장애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한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 중 희망자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한,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돌봄 해소를 지원한다.

IV.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연계한 실용음악교육 적용 방안

1.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연계한 실용음악교육 수용 가능성

실용음악을 특수학교(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용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음악교육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실용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내 음악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과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각각 분석·연계하여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 수용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urriculum and education policy

1)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 제공

학교는 실정·특색을 고려하여 음악교과의 편성·운영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장애 학생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중음악은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며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음악을 활용한 교육이 교내 및 교외 교육을 통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교내

실용음악 관련 프로그램 유무에 관한 설문에서는 ‘없음’이 39.3%으로 나타났고, 실용음악교육을 위한 여건 및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 49%, 매우 긍정적이 37.3%, 보통이 13.7%로 긍정적 답변으로만 응답되었다(Kang & Kang, 2020).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교육 환경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교내에서 시행 가능한 교육 여건 제공과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음악교과를 편성하거나 교과 외 수업에서 실용음악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방과후교육 등에 학생 장애 영역 · 정도별 맞춤형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중음악 점자악보 등의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중매체의 영상자료, 교사들을 위한 실용음악교육 관련 도서 등 실용음악 수업용 자료 및 도구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위한 실용음악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사는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춤형 실용음악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2) 음악교육 범주의 세분화

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재능을 발굴하고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예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일반학교 예술 특성화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음악교육을 세분화할 수 있다. 국내 A대학교 부설 예술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는 전국 단위 특수학교로 2022년 개교 예정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B교수는 국내에 예술중 9개교, 예술고 29개교가 있지만 모두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학급조차 설치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예술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A대 사범대학 · 예술대학과 부설 특수학교가 연계해 교육을 제공한다면 장애 학생의 예술 진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Jo, 2019). 또한, 학교는 학생의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특성화 학급 음악교육의 경우 클래식, 국악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개별 전공교육을 실시한다면 음악적 재능을 지닌 학생들의 전공 선택 폭을 확장하고 심도있는 개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3)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

학교는 교내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직업교육을 전문화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진로체험 지원협의체를 통해 학생들은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굴한 체험처를 등록하는 꿈길 시스템은 진로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한다. 학생의 직업흥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직업흥미검사는 결과를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며, 나아가 포트폴리오로 연계하여(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 학생의 특기·적성, 흥미, 요구수준에 기반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실용음악교육은 전문화·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교육을 공교육으로만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A재단에서는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문 음악가가 멘토로 함께하여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리사이틀을 개최하고 장학, 음악·미술 아카데미 및 융합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Heart to Heart International). 또한, 실용음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용음악을 교과 내에 적용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한 방과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은 실용음악에 재능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이루어 내며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학교는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특성과 프로그램,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12세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이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설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 설명회,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 학부모용 ‘진로레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내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교내 실용음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악교육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학교는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기업, 대학 등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발굴·관리를 통해 교육 내용·방법·학습 집단이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장애 학생 문화체험 활동·예술 동아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및 실용음악 학원과 연계하여 공연 관람, 전공 악기 체험, 스튜디오 레코딩 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 등과 연계하여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함께 작품을 완성하고 직접 공연함으로써 문화를 향유하고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다.

2.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 적용 방안

특수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실용음악교육 적용 방안은 특수교육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고안될 수 있다. 음악교육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확대, 전문 인력의 적극적 지원, 음악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Min, 2016, p. 144), 이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각화, 교내 교과 과정 및 방과후교육 내 실용음악교육 활성화, 교외 자원을 활용한 실용음악교육 전문화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1)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각화

실용음악은 보컬, 악기, 작곡, 미디, 합주 등 다양한 형태로 수준별 교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실용음악교육이 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실용음악교육 연수프로그램도 고안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학 전문가들의 협업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안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Table 7> Model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and teachers

Division	Content
Experience program	Practical music instrument and vocal experience, special lecture by musicians
Camp	Vacation seasonal school, career experience camp, mentoring camp
Major intensive education	Major 1:1 education, ensemble practical and performance, entrance exam, mentoring education
Online education	Real-time non-face-to-face education, non-real-time non-face-to-face education
Teacher training program	Methods for educational application of practical music in the textbook material, Individual instrument education and ensemble, disability area and level education

먼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용음악 체험 프로그램, 실용음악 캠프, 전공 심화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실용음악 강사진이 특수학교 교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용음악 개별 악기 체험 및 대중음악 가창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뮤지션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특강과 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진행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캠프는 실용음악 악기와 미디 및 음향 장비 등이 있는 캠프에 학생들이 방문하여 개별 악기를 배우고 합주를 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작하는 방학 계절학교, 실용음악 관련 진로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진로 체험 캠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멘토와 함께 공연하며 음악 현장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고 심도있는 전공교육을 받는 멘토링 캠프 등이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전공 심화 교육 프로그램은 실용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1:1 교육을 제공하여 보컬, 악기, 작곡, 미디 등 개별 교육 및 합주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용음악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현업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실용음악과 교수 등이 지도하는 교육을 통해 뮤지션이 되기 위한 태도와 자세, 연습 방법, 원포인트 레슨, 진로 탐방 등을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중

(Zoom), 웹엑스(Webex) 등의 화상 강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 비대면으로 전공 교육을 시행하거나 강사가 제작한 교육 영상이 업로드되는 비실시간 비대면 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

교사들을 위한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은 기초 연수 · 심화 연수, 장기 연수 · 단기 연수, 장애 영역별 교육에 관한 연수 등 세분화 · 전문화된 연수 과정들로 구분하여 개발 및 시행할 수 있다. 특수교사는 전문적인 실용음악교육 경험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실용음악은 전공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Kang & Kang, 2021) 교사가 교내에서 실질적인 실용음악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용음악의 화성 및 장르별 리듬을 습득하여 교과서 제재곡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음악의 교육적 활용 방안,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별 악기 교육 및 앙상블, 장애 영역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실용음악교육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다각화된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교육의 세분화를 이루어 내며 음악교과의 운영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내 실용음악교육 활성화

교내에서 실용음악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특수교사의 역량에 따른 음악교과 내 적용, 전문 교과 확장, 외부 강사를 통한 방과후교육 등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가 실용음악교육을 시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에서 실용음악교육을 시행할 경우, 교사가 실용음악 악기를 모두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교내에 실용음악 악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마다 장애 영역과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장애 학생 대상 악기별 개인교육은 학생이 가진 장애 영역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각장애 학생은 음감이 발달한 것에 근거하여 기타나 건반 등 다양한 소리를 듣고 활용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보이싱(Voicing)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지도한다. 청각장애 학생은 음악교육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지도해야 하며 뮤직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교사의 지도를 따라 신체를 사용하여 리듬을 습득한 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적장애 학생은 드럼, 베이스 등 리듬악기의 기본 연주법을 익히며 연주 활동을 통해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주의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서장애 학생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사를 지닌 곡을 가창하거나 가사를 재창조하는 교육 방안이 제안될 수 있으며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선호하는 곡의 기본 리듬 패턴을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신체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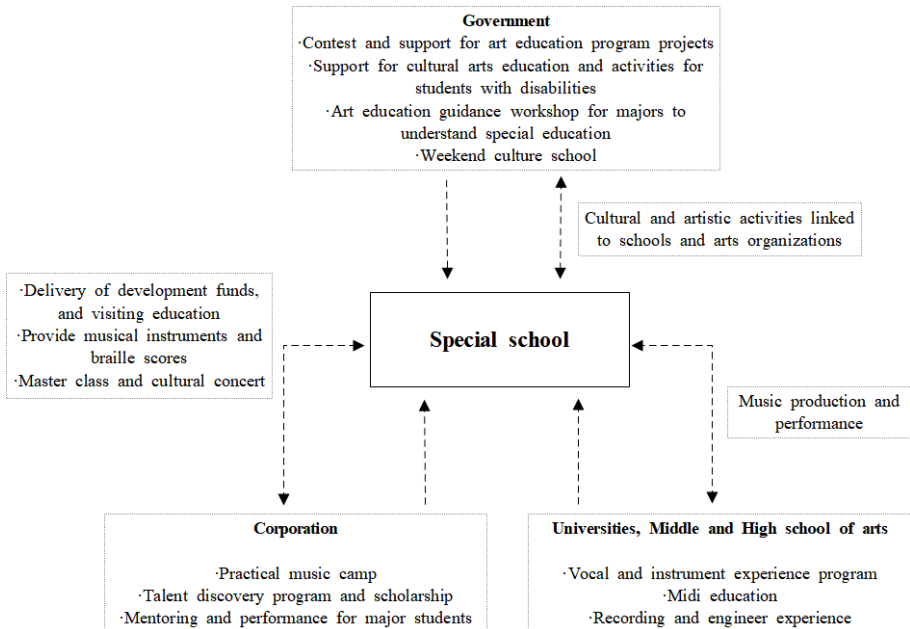
특수학교에서 전문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 예술 계열 과목에 실용음악교육을 적용하여 확장시킬 수 있다. 실용음악이론, 대중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주, 공연 실습 등 보다 심화된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용음악교육 학습장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예술 특성화 학교 및 예술 특성화 학급 개설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방과후학교를 통한 실용음악교육은 보컬, 건반, 일렉기타, 일렉베이스, 드럼 등 악기별 개인교육, 난타 및 밴드 합주와 음악낭독극 등 창의융합형 교육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언급된 ‘창의융합 능력’은 음악 분야의 지식과 소양을 타 교과와 조화롭게 연계시켜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창작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pp. 297-298).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내 강사와 외부 강사로 구분하고 강사는 학생들마다의 장애 영역 및 정도를 미리 숙지하고 고려하여 수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 강사의 경우 장애 학생 대상 교육 경험이 전무하다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특강 및 연수를 교육정책 차원에서 고안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교외 자원을 활용한 실용음악교육 전문화

진로·직업교육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속에서 장애 학생의 요구와 목표에 도달하도록 효율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Park, 2017, Quoted from p. 27). 실용음악교육은 지역사회 기관 및 기업, 학교 및 교육기관 등 학교 외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교외 자원을 연계한 실용음악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Figure 2] Practical music education plan in connection with resources outside of school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등의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실용음악 전공악기 및 합주에 대한 체계화된 수업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 문화재단의 경우 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공모 및 지원, 장애 학생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실용음악교육 전공자 예술교육 지도 워크숍을 시행하고 주말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예술단체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용음악학과를 보유한 대학 및 중·고등학교는 실용음악 악기 및 미디 등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수, 전공 강사의 수업을 통해 실용음악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보컬 및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 큐베이스(Cubase), 로직(Logic Pro) 등의 시퀀서를 활용하여 작곡을 배우는 미디 프로그램 교육, 학생 개별 및 합주 형태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한 후, 믹싱(Mixing)과 마스터링(Mastering) 과정을 경험하는 레코딩(Recording) 및 엔지니어(Engineer) 체험 등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전공교육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작품을 디지털 싱글 음원으로 제작하거나 학교 및 지역사회 축제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용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은 폭넓

고 체계적인 교육을 경험하며 실용음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중 ‘자선적 책임’은 소외계층·교육,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에 근거하여 기업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캠프 후원, 재능 발굴 프로그램 및 장학금 지원,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공연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도있는 전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발전 기금 전달, 방문교육, 실용음악교육 악기 및 대중음악 점자악보 제공, 뮤지션과의 마스터 클래스 및 문화콘서트, 학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실용음악교육 및 강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의 예술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용음악전공 인재를 육성하는 등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과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정책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 수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개별 학생 역량 강화, 음악교과 편성·운영 강화, 교외 자원을 활용한 진로 탐색 및 설계,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실용음악교육 수용 가능성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의 편성·운영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장애 학생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예술 특수학교 설립 추진, 일반학교 예술 특성화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정책 연계를 통해 음악교육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등의 다양한 음악 개별 전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교내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를 구축, 진로·직업교육을 전문화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학교는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실용음악교육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교사를 위한 다각화된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제안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실용음악 캠프, 전공 심화 교육, 온라인 교육, 교사들을 위한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둘째,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실용음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장애 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교과를 통해 실용음악교육을 확장하고 외부 강사를 통한 방과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교외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화된 실용음악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와 예술단체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용음악학과를 보유한 대학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컬 및 악기 체험,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음원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마스터 클래스 및 멘토링, 문화콘서트를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장학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한편 악기·대중음악 점자악보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실용음악교육 및 강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는 지역사회 기관·대학·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용음악적 소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전문 인력의 재능기부와 전공교육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계기를 제공하며 실용음악에 역량이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활성화된다면 실용음악 경험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접근이 용이해지며 특수교육 내 음악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실용음악교육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정책을 분석하여 특수교육 내 실용음악교육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급)의 교내외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및 기관·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적용됨으로써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음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References

- Bae, S. Y. (2019). An analysis of arts curriculum of high schools in seou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 37-59.
- Heart to Heart International (unknown). *Culture and arts support*. Retrieved May 25, 2021, from <http://www.heart-heart.org/business/art>
- Jo, W. J. (2017). Pusan national university affiliated special school seeks art education for disabled students and win-win with the local community. *Sedaily*. Retrieved May 21, 2021, from <http://www.sedaily.com/NewsView/1VKATCB6PE>
- Kang, R. H., & Kang, Y. J. (202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actical music instrument experience program for blind students. *Culture and Convergence*, 42(2), 35-56.
- Kang, Y. J., & Kang, R. H. (2021).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model - Perceptions of special teachers regarding applied music education. *Culture and Convergence*, 43(1), 287-305.
- Kim, H. J. (2018).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pertoires of music textbooks of junior high schools under special education -Focusing on the textbooks of 2011 and 2015 revised curriculum-*.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9). *Established Korea's first practical music department customized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Yonsei University digital education center*. Retrieved May 31, 2021, from <http://blog.naver.com/kead1/221747867183>
- Lim, E. J. (2020). A study on the content system of arts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 175-203.
- Min, K. H. (2016). *Music education: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201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Conference, Seoul.
- Min, K. H. (2017). Research on the meaning of music education in special school and direction of developing the 2015 revised basic music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3, 39-58.
- Ministry of Educaion (2020a). *Special education operation plan 2020*. 1-77.
- _____ (2018). *Basic education curriculum*. 1-455.
- _____ (2020b).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2020*. 1-192.
- Mun, H. R., & Lim, K. W. (2016). A special education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 in music class that utilizes the popular music.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5(3), 135-162.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 *How can I use the results of the job interest test?* Retrieved January 5, 2021, from <http://www.nise.go.kr/boardCnts/view.do?m=090403&s=nise&boardID=503&viewBoardID=503&boardSeq=706381&lev=0&action=view&searchType=&statusYN=W&page=1>
- Park, H. C., Kim, K. S., Park, K. O., & Lee, H. J.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report (11-1342075-000210-01). Seoul: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Won, C. R.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basic music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i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 57-79.
- Yang, E. J., & Kang, M. S. (2008). Analysis and prototype development of the applied music textbook in the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47-73.
- Yoon, M. J. (2018). An investigation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s of using applied music: Focusing on school music clas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music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6, 107-121.